

유실수와 약초 재배기술 보급하여 특산단지 조성

지도교수 : 임 형 배(보성농고)

마을명 : 전남보성군보성읍옥평리 두슬부락

1. 산지마을과 기술결연

결연지도의 마을은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두슬부락으로서 유명한 보성의 홍차밭과 5km 이내에 있는 해발 180m의 고지에 속하는 마을이다.

마을의 현황은 1977년 7월 현재 농가 56호, 비농가 19호로 도합 75호이며 마을의 인구는 466명으로 호당 평균 1.08ha이며 산은 646ha로써 비교적 산의 면적이 많은 마을이고 마을의 교육수준은 총 인구 466명 중, 대졸 6명 고졸 14명, 중졸 8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 학벌있고 재력있는 부유층의 이농과 도시진출이 많은 마을이다.

농업 기계화의 정도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경운기 4대, 분무기 9대 양수기 2대가 전부이며 농업기술 보급수준도 낮아서 2~3년 전만 하여도 지방의 기후적 조건만을 탓하고 과수나 비닐하우스 등의 고등원에 기타 농가소득이 높은 경제작물의 재배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구태의 연한 방법의 농업을 영위해 왔었고 70년대초 새마을 운동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맥중심의 식량작물만을 생산하여 겨우 연명하던 저소득의 마을이었으나 71년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마을에서도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 마을의 모습은 지붕개량, 농로개설 마을 안길 넓히기, 마을회관 건립 등으로 많은 변모를 가져왔다.

물론 외형적인 발전과 변화는 있었으나 낙후된 생산기술과 봉건적이고 배타적인 주민들의 성격과 비협조적이고 냉담한 주민들의 자세와 인재의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의 새마을 운동은 너무도 힘겨웠고 무리와 술한 문제점을 안고 이끌어가는 형편이었다.

2. 산지농업에 대한 기술지도 시작

어려운 가운데도 뜻 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마을환경 개선에 대하여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소득증대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계획도 기대도없이 미맥중심의 일반농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73년 봄에 나는 두슬부락의 친척택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 마을 지도자 이장등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소득증대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었다.

나는 평소 이 마을에 들릴 때마다 이 마을의 환경이 산지농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던 터라 두슬부락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경지 면적이 좁고 산지가 68%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앞날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를 산에서 찾는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현명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두슬부락의 경우도 마을 뒷산이 크고 경사도 급하지 않아 이용가치가 크므로 미맥중심의 논 농사보다는 밭이나 산지 농업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하였고 마을 사람들도 이를 수긍하여, 감, 밤 등의 유실수와 약초재배에

손을 댈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하여 나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하여 자매결연을 맺어 힘닿는대로 필요한 기술지도를 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힘을 합하여 소득증대에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3. 유실수 재배

원래 두솔부락에는 옛날부터 밤이 많이 심어져 있었으며 이 마을의 밤은 크고 올밤으로 “보성밤”이라 하면 전국에서도 유명하였다.

그러던 것이 밤나무 흑벌의 침해로 재배종 밤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무마저도 죽어 갔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품종을 구하여 심었으나 부실 품종으로 다시 흑벌에 걸리거나 품질 불량 등으로 번번히 실패하였고 심어진 밤나무 단지내의 나무들도 관리소홀로 영양상태가 불량하고 결실성적은 아주 보잘 것이 없었고 마을사람들의 실망도 대단하였다.

기술지도의 첫 단계로 우선 밤나무도 다른과수와 같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거름도 충분히 주도록 하고 밤나무 주변의 풀베기도 하여 주고 해충에 대비하여 농약도 살포하여 정성을 기울여 가꾸도록 지도하였다.

73년 봄에는 마을에 심은 밤나무, 감나무 등의 묘목을 마을 공동양묘로 품종이 확실하고 우수한 묘목을 직접 생산하기 위하여 밤 종자 한가마니와 감 종자 반말을 공동 구입하여 마을 양묘를 하도록 기술지도하였다. 그 결과 12,000주의 밤나무묘목과 감나무 묘목 5,300주를 생산할 수 있었으며 그해 겨울철의 농한기를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접목에 대한 사전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였다. 지도방법은 접수를 다듬는 일의 반복 숙달과 대목 크기의 나무를 양발바닥 사이에 끼워 포장에 있는 대목으로 가상하고 칼질하는 요령을 익힌 다음 비닐 테-프로 묶는 기술 등을 숙달시켰다.

다음에 봄에는 도 새마을기술봉사단의 알선으로 밤나무 흑벌에 강한 “은기”와 “단택”등의 품종이 확실한 접수를 구할 수 있었고 감나무는

경남 진양에서 품질이 우수한 진양 단감 접수를 입수하여 밤나무는 박피 접으로 12,000주 담나무는 4,500주를 절점으로 마을 사람들이 직접하여 85% 이상의 높은 활착율을 올릴 수 있었다.

75년 봄에는 마을 양묘에서 생산된 밤나무 묘목 8,300주와 감나무 3,800주를 마을 뒫산과 농가 주변에 심을 수 있었으며 마을에 심고 남은 묘목은 이웃 마을에 밤나무 3,500주, 감나무 800주를 팔아 43만원의 마을 공동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사랑방에서 기술지도 하였던 접목기술에 의하여 마을 양묘의 접목은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있었고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거의 접목 기술자가 되어 하루 500본 이상 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숙련접사가 8명, 300본 이상 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숙련접사가 14명, 중급정도인 자가 14명으로 부녀자 까지도 접하는 기술이 대단하여 이웃 마을이나 타지방까지 나가서 접사의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접목에 의하여 벌어들이는 수입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접목의 원리를 알고 기본 기술을 익힌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나무의 접에도 자신을 갖게 되었고 흑벌의 피해가 심한 나무는 위에서 자르고 접하여 갱신시키는 고접의 기술도 숙달되어 이제는 흑벌의 피해로 밤나무의 밑그루를 베는 일은 거의없어지게 되었다.

현재까지 심었던 밤나무 16,000주, 단감나무 4,200주가 자라서 성과연도인 82년도에 달한다면 매년 밤 200톤, 단감 250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 마을의 소득증대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되리라 믿는다.

4. 약초 재배

◎ 작약 재배

마을의 기후적인 조건과 토양조건 등을 감안하여 약초재배가 유망하다고 보아 75년 가을에는 12농가에 권장지도 하여 0.8ha에 작약을 식

기술지도와 소득증대 효과

재하였고 꾸준히 가꾸어서 관상과 약제로서의 가치가외에 모란 접목에 대목으로 약초자원 확보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 모란재배

모란 역시 농가부업에 적당한 약용작물로서 고가의 약제로 이용되어 재배의 가치가 크다고 보고 기술지도에 착수하여 75년 가을에는 4농가 17a, 76년 가을에 2농가 20a, 십어 이전부터 십어 오던 3농가 20a와 합하여 11농가에 0,6ha가 십어졌고 식재 및 재배 관리에 대하여 철저한 기술지도를 하여 금년 가을부터는 작약에 모란을 접하여 모란묘목을 매년 계속 생산하여 증식에 힘쓸 계획이며 특히 금년부터는 값이 비싼 화훼중 모란의 접목 생산의 생산의 기술지도를 할 계획이다.

◎ 지황등 기타 약초재배

약초재배가 농가의 부업재배로 적당한 작목임에는 틀림없으나 해마다의 가격 변동이 심하여 여러가지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작약 모란 외에도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지황 백지 길경등 여러가지 약초를 재배토록 기술지도하여 다각적인 재배방법지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초재배로 얻은 소득을 참고 삼아 살펴보면 작약 11,250kg에 360만원, 모란 6,750kg에 216만원, 지황 562kg에 180만원, 백지 11,250kg에 240만원, 길경 1,500kg에 36만원으로 도합 1,032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76년도 마을 호당 소득은 132만원이 되었으며 77년도에는 호당 150만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5. 기술지도와 소득증대 효과

이상의 감·밤등의 유실수와 목단·작약 등의 약초재배에 대한 기술지도 이외에도 마을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부락민의 정신계도를 위하여 결연 이후 6차례에 걸쳐서 마을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여 줌으로써 마을사람들의 협동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근면자조의 정신으로 새마을 운

동을 지속화 시켜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여 주었고 농업기술증진, 환경개선, 농업기계화 등의 사업에 꾸준히 노력하여 왔던 바 75년도에는 벼농사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시비관리 및 병충해의 철저한 예찰과 방제로 10a당 평균 410kg의 수확량을 올렸고 76년에는 더 많은 495kg의 생산실적을 올렸다.

결연전만 하더라도 농용석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길가나 논두렁에 버려두는 형편이었으나 부락민을 설득시켜 석회를 사용한 결과 그해 보리농사에서 전보다 약 30%의 증수를 가져왔으며 이제는 마을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석회를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두솔마을과 1km이내의 거리에 전라남도에서 가장 시설과 규모가 큰 도축장이 있는데에 착안하여 양돈 사업도 지도하여 현 재마을공동사육 양돈 120두와 개인양돈 사업으로 25농가가 130두의 돼지를 기르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지농업을 위해서는 많은 퇴비가 있어야 하겠고 이를 위하여 돼지는 좋은 거름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어 더욱 양돈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는 마을의 입지조건을 감안 미개발된 야산 50ha정도를 개간하고 초지를 조성하여 100두 정도의 비육도 시작할 계획으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겨울에 극심하였던 한파로 두솔마을에서도 보리가 거의 얼어 죽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조치로 앞담배 재배와 감자 옥아재배의 기술지도로 1.2ha의 밭에 앞담배를 식재하도록 하였고 보리가 얼어죽은 논 1ha에 감자를 옥아 재배하여 4,500kg의 감자를 생산하고 벼를 심을 수 있었으므로 한파로 인한 보리의 피해를 충분히 만회하고 실의에 차 있던 농민들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금년도 벼농사에도 보은 비닐 못자리부터 철저히 기술지도하고 조기이앙을 서둘러서 평소에 비하여 10일정도 일찍 이앙을 끝마칠 수 있었고 지금까지의 작황은 아주 좋아 금년 벼농사도 풍년이 기대된다.

이와 같은 다방면의 기술지도는 본인 한 사람

으로의 기술지도는 힘에 벅찼기 때문에 군지부의 다른 전문지도위원의 협조를 많이 받았으며 그동안의 측면적인 협조를 하여준 여러분에게도 감사사를 드리는 바이다.

6. 계속적인 기술지도 계획

이 마을과 자매결연의 인연을 맺고 기술지도한지 어언 5년이 되었고 기술봉사단과 인연을 맺은지 3년 남짓한 동안에 과거의 미맥 중심의 무기력한 재래식 농업에서 이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의 진보를 가져왔다.

71년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마을 안길 넓히기, 지붕개량, 담장정리, 상수도공사, 마을회관 건립과 마을 앞의 농경지 정리작업 등 어려운 일을 계속치르다 보니 마을에 다소의 무리가 있었으며 실의에 차 있던 마을이었으나 기술봉사

단과의 자매결연 이후 이제 기본적인 생산기반이 구축되었고 76년에는 이미 이 마을의 농가소득이 142만원을 달성하였다.

그 동안 소득 증대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도로 마을에 힘이 되어 주었고 “생각하는 농민, 과학하는 농민, 실천하는 농민”, 으로서 잘사는 마을을 이룩하고자 산에서, 들에서, 가정에서 버려진 땅, 노는 일손을 한데 뭉쳐 유실수 재배, 약초 재배, 축산, 고등원예, 양잠부업 등 부락의 모든소 득원을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하여 80년대에는 농가소득 목표 200만원을 기어이 달성하고자 결연지도자와 새마을 지도자 이장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마을이 산지 농업의 개발과 다각 농업의 선도적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자매결연 마을인 두슬부락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과학과기술”지 投稿案内

- ＝論 壇＝ 가. 學術研究論壇·産業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國內外의 最新 科學技術
 나. 學術情報 : 새로운 海外의 科學技術 정보 紹介
- ＝固 定 欄＝ 가. 科學春秋 : 生活周邊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事例中 科學技術의인 側面에서 指導 및 改善이 必要한 內容을 骨字로 한 것.
 나. 내가 본 世界第一 : 筆者가 경험한 가운데 가장 理想的인 施設 및 運營方法 또는 존경할만한 人物의 研究態度 및 生活哲學의 紹介
- ＝原稿枚數＝ 가. 論壇기타 原稿 : 25枚內外(200字 원고지)
 나. 科學春秋 : 6枚內外(200字 원고지)
 다. 내가 본 世界第一 : 13枚內外(對象施設 및 人物의 스케치)
 라 寫眞 : 1枚(명함판)
- ＝其 他＝ 外來語表記는 文敎部에서 指定한 표기법을 使用하고 도량형은 政府가 指定한 도량法인 미터法으로 표기해야 함.